

쉬맹이라 훈 사름이
 천하거부로 잘 살아지난,
 하님년은 멧개 들고
 아방을 팽풍 치연 모사두서
 밤이 중석꺀지 잘 먹이멍
 살았수다.
 쉬맹이 아방이
 곳 예션이 나난
 식상 식술을 설러불고
 아침이도 죽, 낮이도 죽,
 즈낙이도 죽,
 호로
 죽 시발썩을
 먹이기로 하니,
 쉬맹이 아방은
 때 들러온 하님년신디,
 “이거 어떻 호난
 응 호 때 죽 호사발썩만
 주느냐?
 내 배고파서 못살겠다.”
 하님년은 말을 호되,
 “한집님 말이,
 똑 이초록만 호랜 흡디다.”
 이젠 쉬맹이 아방은
 아들을 불러다놓고
 “어떻 호 일곤?”
 호난,
 “아버지, 사름 호대가 서른인디,
 아바진 금년이 예션,
 두대를 살아시니 너미 살았수다.
 아버지가 두대를 살아도
 더 잘 먹을커건
 죽영 저싱 가도
 하다 이싱에
 귀신으로 먹으레 오질 말키엥

헉민,
죽영 삼년상에 식상 식술
놓는 몫,
잘 대접할쿠다.”
“아, 경 흘키여.”
“경헉건,
아방은 죽영 가도
인간이 초헉를 보름
식개 멩질 기일제스 때에
하다 오지 아니헉키엥
징서를 씹서.”
아방은 경 헉기로
징서를 씨난,
쉬맹인,
아방이 죽영 강 먹는 몫,
쇠잡아 놓고
전이 일체로
밤이 중석??지 잘 먹이는다,
예신 헉나 나는 해엔,
막 먹는 뒷날은
그만 황천질을 터났구나.
쉬맹인, 죽은 아방을
거적에 싼 간 톱와불고,
아방상에 물 훈적 거려 놓는 양
엇이
편쩍헉연 지내엿수다.
섯들 구뭉은 당헉난
저싱선 감옥문을 을아놓고
저싱 제자들을 문 불런,
“이싱에 멩질 먹으레 강 오랜.”
보내난,
다른 제즈들은 매딱 녹려갔는다,
어떤 제가 옥방속에서
옥통즈를 부는 소리가 난다.
천지왕이 토인 남상?라
말을 헉되,
“저디 강 봐라,
어떤 즈가 옥통즈를 부느냐?

물어봐라.”

“간 보난

쉬맹이 아방이노랜 흡디다.”

“헉건, 이레, 강 불러오라.”

쉬맹이 아방은 천지왕 앞으로
오난,

“는 어떤 즈냐?

다른 제는 옥문을 읊으

맹일먹으레 보내난

지꺼지연 나가는디,

는 무사 아니감시니?”

“나는 인간이 가도

어느 누게 물 흔적 헉영

줄 제가 엇언 아니갔수다.”

“경 헉여도 이 때엔 다 간다.

강 보아라.”

“아들은 이싱서 천하거부로

잘 살아도

저싱 가민 아니얻어먹기로

댁임을 씨여두언,

이싱서 저싱 꺾꺾지,

문 먹언 오랏수다.

“경헉여도 섯들구름엔

경 아니헌다. 강 보라.”

이젠 쉬맹이 아방은

인간일 나오란

아들집일 갔구나.

쉬맹이 아방이 인간이

쉬맹이 집일 오라서도

아무것도 줄 회겔 아니헉연,

편찍덜 앓이난,

물 흔적을 못얻어먹고

저싱엘 갔수다.

쉬맹이 아방이

이싱에 나왔단

저싱엘 가시난,

천지왕이 말을 헉되,

“느 간 맹질 먹언

완디야?”
“게메, 나 체암부떠
아니가키엔 아니흠디가.
그냥 오라부렸수다.”
그젠 천지왕은
군줄들을 내세완,
“인간에 쉬맹일 강 심영오라.”
흐난,
군줄들은 쉬맹이 심으레
완 보난,
죽구는 개도 아웁이고,
무는 개도 아웁이고,
차는 물도 아웁이고,
찌르는 쇠도 아웁이고,
긋딱 들어갈 수가 엇언,
저심으로 되돌아간,
천지왕?라
“쉬맹이네 집일
긋딱 들어갈 수가
엇입디덴”
골으난,
천지왕은 그만 화를 내고
군수를 거느리고
쉬맹일 심으레
인간이 노려완 보난,
아닐카,
개영, 쇠영, 물이영
딱 직혀 사부난
들어갈 수가 엇엇수다.
쉬맹이네 집에 들어갈 수가
엇이난,
올래 몽쿠실낭 상가지에
올라 앓안
일만 군수?라 말을 흐되,
“열두 송험을 들이라.
그놈의 집 솔앞이 강
장삼게염이를 일루라.”
솔앞이 게염이가 일어나난,

늦인득이 정하님은,
“솔앞이 게염이가 일었수다.”
쉬맹이가 말을 헛되,
“그게 송험이 아니다.”
“솔뒤에 용달버섯이 났수다.”
“장재칩이 반찬 떨어져가난
초기 대신 났다.
그게 송험이 아니다.
반찬 대신 볶으라.”
“말치가 저 올래에
엉기덩기 걸음을 햄썬다.”
“장재칩이 매날 불습아부난
더워 깨래 나갔다.
그게 송험이 아니다.”
이젠
“밭갈쇠가 지붕 한간으로 들언
지붕 상뭇를 넘엄수다.”
“장재칩이 쇠 잘 멕이난
솔쳐부난 콥재완 경흐염다.
것도 송험이 아니다.”
천지왕은 일만군스 시견
쉬맹이신디 송험을 들여봐도
쉬맹이가 꺾딱을 안흐난
이젠 씨철망을 꺾다단
쉬맹이 대갱이레 팍 씹우난,
그젠 쉬맹인
“아이구! 대맹이여,
애이구! 대맹이여,
큰 아들아
도치 7정 오랑
나 대맹이 직어도라.
대맹이 아판 못살키여.”
큰아들은 말을 헛되,
“아방 대강일
도치로 어떻 직음네까?
난 못흐쿠다.”
셋아들7라 곱아도
“아방 대강일 못직으쿠다.”

죽은아들 ㄱ라 곱아도

“못직으쿠다.”

흐연,

흘 수 엇이, 이젠

수므름 종년을 불런

“나 대갱일 도치로 직어도라.

아판 못살키여.”

흐난,

종년은 츠마 한집 대갱일

직을 수라 엇언,

도칠 들런 대갱일 직는

것츄록 흐단

대문지방을 더락기 찍으난,

천지왕은

쉬맹이 대갱이 씌운

철망 부서지카푸댄

철망을 확 걷우우난

아픈 대강인 옥곳 나사진다.

천지왕은 ㄴ시 쉬맹일

잡지 못흐연

바구왕집으로 가는구나.

바구왕칩인 곱딱흔 똥

서수암이가 시였는디,

이 똥은

바구왕광 총맹부인 ㅅ이에

낳은 똥이우다.

천지왕은 그날 츠낙은

바구왕칩이 즘을 자게

되는구나.

밤인 천지왕이 총맹부인 ㄱ라,

“어디 당흔썬 새각씨라 시민

ㄷ라당 인방이나 새영

가주기마는!

발실려완 자질 못흐쿠다.”

흐난

총맹부인은 그젠

똥방일 들락날락 흐멍,

미신 말 ㄱ를 듯 ㄱ를 듯

허당
 그냥 나곡 그냥 나곡,
 허난,
 서수암인.
 “어머님, 미신 ㄱ를 말을
 아니ㄱ란 기영 허염수가?”
 허난,
 “스실이 기영 아니 허였저,
 천지왕이 느려오란
 밤을 자는디
 당혼쑈 새각시나 시민
 구허여 도랜 허여도,
 늘ㄱ라 느시
 입에 말이 아니나오란
 그냥 감ㄱ라.”
 “어머님아,
 나 나이, 이제 열으섯
 아니우파,
 그런 천지왕 곁은 사월
 허여질 것 곁으민
 미신 분압을 흡네까.”
 허난,
 그날 밤인
 서수암이가 등불을 들런
 천지왕방으로 들어간다.
 천지왕은 인기척 소소리가
 나난,
 “거, 누게냐?”
 “서수암이 올십네다.”
 “괴썸허다.
 느방으로 나고가라.”
 서수암인 애삭허연
 지방으로 돌아온다.
 뒷날 밤인
 이 날 저 날 야즈시에
 천지왕이 등불을 들르고
 서수암이방으로 완,
 서수암이ㄱ라.

“지나간 밤,
내 곁은 말에
느가 애삭했었느냐?
남즈가 예즈방을 좇아가지
예즈가 남즈방을
모녀 가는 법이 아니다.
늘?라 문첩호노라.”
그날 밤은
천지왕광 서수암인
천상배필 시겼구나.
밤이는 누엇단
천지왕이 백장데레 돌아누멍
한숨을 “후~” 하게 쉬난,
서수암이 흐는 말이,
“인간이 느려오랑
누취훈 인간광 밤을 자지니
그럼네까?”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아들 성젠
느 몸에 두엿 감건마는
누게가 이 아이들은
천지왕 아들이엿
크리 내겨주지 안홀 거니
그러는다.
아들랑근 성젤 낳건
큰아들은 대뻬왕,
족은 아들은 소뻬왕,
똥 성제랑 나아지건
큰똥랑 대뻬대기
족은똥랑 소뻬대기로
호여라.”
본매본장은
용얼래기 훈착 호고
콧씨 두 방울광 다림 훈착을
내여주멍,
“콧씨랑, 이월 나건
챗 돛일에 싱경
칠월 나건

쳇dot일에 수둔 주영
줄뵈아가건
그 줄 바랑
옥황데레 아방국에 올라오라.”
서수암인 그날츠낙 천지왕광
천상배필 무은 게,
아옙들 열들 촌짐 식건
아들 성젤 낱안,
큰아들은 대뻬왕
족은아들은 소뻬왕
일름을 지왔구나.
이 아들들을 질우는 게
혼이 시슬 나난
기는 것도 글발이요
우는 것도 글소리라,
혼 일곱슬 나난
글 혼제를 7리치민
열제썩 통달헛곡,
웅 일천서당에 보내난
하도 글이 종앙그네,
스뭇 헛여가난,
다른 선비들은 시기헛고
“밤공다리 생긴거여
낮간나이 낱은 거여.”
헛명, 졸려가난,
아들들은 집이 오란,
어명국을 답달헛명,
“우리 아방 누게우꽈?
쫓아줍서.”
“천지왕이 느아방이여.”
“게난, 우리 아방이
본미본장도 아니두언 갑디가?”
“무사 아니두영 가느니,
큅씨 두방울 헛고,
용열래기 훈착 헛고,
다림 훈착 두언 갔저.”
“게건, 이레 내여놉서 보저.”
서수암인 아들들신디

본미본장을 내여주고,
이월 난 쳇dot일에
성제라 꺾씨 훈방울썩 싱건,
칠월 나난
쳇dot일에 수둔주고
그 꺾에 줄이 번으난,
꺾줄로 노기상공 옥황데레
올라가난,
천지왕네 물팡돌에
성제라 놀암시난,
천지왕의 지동토인은 보안
“어떤 인간이
우리 천지왕 물팡돌에 왕
노느냐?”
훈난,
대뻬왕광 소뻬왕, 성젠,
“무사 우리도 천지왕만인 훈
놈이다.
무사, 우리가 천지왕 노는 디
못 놀 사름이냐?”
그 말 들언,
토인은 이젠 천지왕신디
간,
“어떤 누취훈 인간이
천지왕님 물팡돌에 놀암수다.”
“강 물어봐라, 어떤 놈이냐?”
“물어보난, 우리도 천지왕만인
훈 사름이노랜 흡디다.”
“이레, 강 가이들 돌아오라.”
토인이 나간 대뻬왕 성젤
돌안 오난,
천지왕은 말을 헛되,
“느가 외진외펜 어디냐?
성진성펜 어디냐?
“우리 외할으방은 바구왕이우다.
우리 외할망은 총맹부인이우다.
우리 어명은 서수암이우다.
아방국은 천지왕이 올썩네다.”

“허허, 느 게니 본미본장이나
?졌느냐?”
용얼래기에 다림 훈착 내여놓난
봣짝하게 맞아진다.
“내 즈식이 분맹하다.”
“우리가 아방 즈식이민
아방 동궂립에 앓아봐사
즈식이 됩주,
경아니헌디 즈식이 됩네까?”
“게건, 이레 왕 앓이라.”
큰아들 대뻔왕은
동궂립에 앓안 똥오좁을 싸멍
흥애를 한다.
이젠, 대뻔왕이 말을 헛되,
“큰어멍 낳은 적시 되쟁 헛민
큰어멍 가달로 나오라나사
됩네다.”
천지왕이 말을 헛되,
“기여, 느 헛지그려운냥 헛라.”
이젠, 성제가 아방동궂립에서
온 조새 문 헛단
큰어멍 굴중이 가달로
들어갔단 나온다.
대뻔왕은 큰어멍 굴중이
원착 가달로 들어간
늑단착 가달로 나오곡,
소뻔왕은 큰어멍 굴중이
늑단착 가달로 들어간
원착 가달로 나온다.
천지왕은, 큰아들 대뻔왕?라
“느 대뻔왕이메
이싱왕을 강 좃이헛라,
족은 아들은, 느 소뻔왕이메
저싱왕을 강 좃이헛라.”
헛난,
족은아들은 욕심이 씨연,
아방 골은양 아니헛연,
대뻔왕?라 말을 헛되,

“옵서, 우리 예숙이나 짓겨왕,
예숙에 이기는 제랑
이싱을 초지하게
예숙에 지는 제랑
저싱을 좇이옵시다.”
경호연, 소백왕은 대백왕신디,
“속이 움은 낭기
저실이영 으름이영
섰이 삼네까,
쑥구린 낭기
저실이영 으름이영
섰이 삼네까?”
“어디 지영호여진댄 말이냐?
쑥이 움아사
저실이영 으름이영
섰이 산다.”
“게난, 무사 댓모작은
쑥이 구리여도
저실이영 으름이영
섰이 퍼렁케 돋읍네까
성님 예숙 지였수다.”
“또, 짚은 굴형에가
풀이 걸게 납네까
높은 동산이가
풀이 걸게 납네까?”
“어디, 높은 동산이
풀이 걸게 난댄 말이냐
짚은 굴형에가
풀이 걸게 나지.”
“게난 무사 사름 머리엔
높아도 머리턱이 거멍케 나고
발등엔 꺼럭 훈점도
안났수가?
성님 예숙 지였수다.
저싱으로 가사 흘쿠다.”
성은 예수에 아시안티 지난
눈말 멀쭉멀쭉 호여가난,
아시가 말을 호되,

“게멘, 이번이랑 똑난 예숙을
훈번 더 찻겨방
지는 제랑 저싱을 가기로 흡주,
이번이랑, 우리 고장을 싱경
고장 좋은 펜이
이싱을 츠지헝기로 흡주.”
소백왕은 성님인 대백왕을
이경, 이싱을 츠지홀
궁량을 틀엄신디.
은동이에 고장을 싱건 보난
대백왕 앞잇 고장은 만발헝고
소백왕, 이녁 앞잇 고장은
유울 고장이 되여가는구나.
그 영헝난
밤인 누언 자는디.
소백왕은 일어난 슬째기
성 앞잇 고장을 지앞데레
등기여다놓완
몰른 척 헝연 누언 잤수다.
붉는날은 일어나난
성은 불써 눈치 알안,
말을 헝되,
“괴씸헝다,
나 앞잇 고장이 걸음걸언
느 앞데레 간나?
느가 욕심이 너미 씨다.
난 저싱 좇이헝레 간다.”
응 헝연 대백왕광 소백왕
성제라 갈라산.
대백왕은 저싱 좇이,
소백왕은 이싱 좇일 헝였수다.
경헝연 저싱광 이싱을
질루지썩 츠지헝연
다시리는디,
헝 하늘엔 해도 둘, 둘도 둘,
욕심 썩 놔이 하고,
도둑 적간이 하고,
인간이 불목이 하고,

상팻짓이 하영 싣고,
낭기, 돌 제푸싣새라
말을 종종 곱고,
귀신 불령 생인 대답,
생인 불령 귀신 대답하곡,
스천이 속싣하고,
일가 방문하여 온다.
경하여가난,
소백왕은 이싱 좃일 하엿건만,
이싱 다시리기가 제완,
이싱 법을 다시리질 못하연,
대백왕 성님신디
저싱데레 빌레 좃안 가는구나.
소백왕이 말을 하되,
“성님이 이제랑
이싱 좃일 흡서.”
대백왕이 말을 하되,
“그건 못하는 법이다.
할으방 갈 딴
손지가 대력 가도, 손지 갈 딴
할으방은 대력 못간다.
느가 좃이훈대로 어서 가거라.
내가 큰 법은 강 다시려 주마.
그 대신 족은 법은
내가 못다시린다.”
그영하연,
대백왕은 활선싱 거저님
불러단,
백근 활에 천근 쌀에
흑개구리 가래 박은 곱은 쌀을
오니죵쑥 물려단에
앞이 오는 해는 쏘와단에
동의 와당 광덕왕에 지부찌고
앞이 오는 둘은 생겨두고
뒤엿 둘은 쏘와다가
서의 와당 둘 툰국이 지울리난,
훈 하늘에
둘도 하나 해도 하나

되는구나.
 낭기, 돌, 제푸싯세 말 곶는 건,
 후춧굴리 닷말 닷되 칠새오리
 말 바소완
 마브름 주제에
 동서레레 삭삭 불려부난,
 낭기, 돌, 제푸싯새, 감악새가
 세가 칭칭 자련
 말 못곶게 되엿구나.
 귀신광 생인이
 서로 말 곶는 건
 화정여광 남정종을 불려다가
 백근 저울에 저우려완,
 백근 찬 건
 인간데레 지부찌고
 백근 못찬 건
 공작 둘 박안
 옥황데레 지울리난
 귀신을 공작가 돌이난
 저싱광 생인을 브래고
 생인은 공작가 헉나 매기난
 귀신을 못브랜다.
 경헉연
 대뻬왕광 소뻬왕은
 아방 뻬을 어견
 천지왕 골은냥
 헉지 아니헉여부난,
 인간 세상이
 하근 도독들이 하고
 불목즈가 하고
 나쁜 일이 하영 납네다.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여무 73세 이무생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228-236.